



가트너 “올 PC출하량 13.9% 증가”

올해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PC) 출하량이 작년보다 13.9% 늘어난 1억87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이 보도했다.

하지만 두자릿수의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은 극심한 가격경쟁 때문에 작년보다 9.5% 늘어난 213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가트너의 수석 애널리스트 조지 시플러는 올해 평균 PC 판매가에 대해 “작년보다 4.5%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디지털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일반인들의 새로운 PC 구매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의 PC 교체주기 도래도 올 한해 PC수요를 견인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올 1분기 PC 출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많은 44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가트너의 라이벌인 IDC의 경우 올 한해 세계 PC 출하량에 대해 작년보다 11.4% 늘어난 1억7000만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식 전망치는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노키아, “과열 뚫고 중국 휴대폰시장 공략”

노키아가 중국내 휴대폰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만간 새로운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중국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노키아 네트워크 중국 법인의 허칭위엔 부사장은 이미 중국 현지의 기존 4개 합작사(휴대폰 제조 2개사,

통신장비 제조 2개사)들과 신규 합작사 설립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합작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내 노키아의 최대 합작사가 될 신설 회사는 최대 규모의 휴대폰 제조 및 수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허칭위엔 부사장은 덧붙였다.

현재 중국내 60개 사무소와 2개 연구개발 센터에서 450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노키아는 이번 새로운 합작사 설립을 통해 중국을 최대 휴대폰 생산 및 연구 개발 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노키아 중국법인은 종전의 9개 사업부를 모바일,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기업 솔루션 등 4개 사업부로 재편하고, 비핵심 사업부문을 분리한 상태다.

또 노키아는 중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집중해온 GSM 단말기 시장 이외에 CDMA 휴대폰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국 통신사업자인 차이나 유니콤으로부터 대량의 휴대폰 구매 계약을 따놓은 상태다.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38%를 점유하고 있는 노키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들어 닝바오 버드·TCL 등 중국 휴대폰 메이커들이 맹추격하고 있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신식산업부에 따르면 닝바오 버드와 TCL은 지난해 10개월 동안 각각 968만대, 765만대를 판매, 노키아(738만대)와 모토로라(735만대)를 처음으로 따라 잡았다. 자오 켈린 노키아 중국 법인 부사장은 “올해 중국에서 신규 휴대폰 모델들을 출시, 매출 실적에서 뿐만 아니라 판매량에서도 선두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만, LCD산업 올 매분기 10% 성장 전망

대만의 LCD산업이 올해 PC와 가전분야의 수요 증가에 따라 분기마다 10%씩 성장할 것이라는 대만 정부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보도했다.

대만 공연원(ITRI)의 모리스 첸 애널리스트는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지만 대만의 LCD패널제조업체들의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첸 애널리스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대만 LCD업체들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6~10%씩 성장할 것”이라며 “컴퓨터 교체수요와 LCD TV, 휴대형 단말기 등이 수요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원은 올해 상반기에 AU옵트 로닉스 등 대만 LCD업체의 패널 매출액은 3019억대만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80%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하반기에는 LCD유리의 공급부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CD와 달리 PDP산업은 일본 제휴업체의 기술지원 부족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공연원은 지적했다.

미국·EU, 대형 유통업체 RFID 실용화 박차

미국과 유럽 연합(EU)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자태그(RFID)’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월마트 스토어즈, 메트로, 막스앤스펜서 등 구미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연내 RFID를 활용해 도난 방지 및 물류·재고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구미 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실험이 아닌 실제 적용이라는 점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의 실험 단계에 착수한 일본과는 다르며 향후 유통 분야의 RFID 표준화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세계 1위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지난해 말부터 거래처 가운데 상위 100개사와 RFID 도입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의류·일상용품 등이 적용 대상이며 거래처로는 질레트·프록터 앤갬블(P&G)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미국 내수용 상품의 진열대나 상품 걸상자에 RFID를 부착할 예정인데 향후 수년간 약 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5위인 독일의 메트로는 상위 거래처 100개사에 올 11월까지 RFID 부착을 요청했다.

오는 2006년까지는 3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영국의 막스앤스펜서는 이미 점포에 운송되는 식품에 RFID를 부착한 플라스틱 박스를 채용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신사복에 부착해 판매하는 실험도 마쳤다.

이들 업체들이 정보 처리 규격으로 'EPC(전자제품번호)'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단체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메트로도 EU 소매업체인 영국의 테스코, 프랑스의 까르푸, 미국 인텔 등과 공동으로 이 표준의 EU 보급을 목표로 관련 단체를 발족한 상태다. 두 단체는 EPC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데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를 915MHz로 통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 친환경 소재정보 제공

소니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 부품에 관한 정보 제공

에 나섬에 따라 국내외 부품업체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니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카드뮴'과 '납'을 포함하지 않은 수지·도료 등 총 6800개 종류에 달하는 소재 정보를 정리해 4200개사에 달하는 납품업체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다음달 말까지 모든 전자제품에 카드뮴과 납 사용을 전량 폐지키로 한 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소니 스스로가 환경 안전도를 확인한 부품을 지정해 납품업체들에게도 이에 맞는 대체품으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소니의 이번 방침은 일본의 전자업체가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 카드뮴 등을 향후 2년 내로 전량 폐기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세계 전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니는 우선 수지, 도료, 잉크, 전선, 기관 재료 등 5개 품목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한 부품 정보를 최근 정리했다. 이를 자체 인터넷 전자조달시스템인 '그린북'에 올려놔 소니의 환경 조사에 합격한 납품업체들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전세계 LCD 출하량 CRT 추월

올해 전세계 LCD출하량이 사상 최초로 CRT를 능가할 전망이다고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보도했다.

IDC는 최근 수년간 LCD기반의 모니터와 TV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내려감에

따라 CRT를 내장한 덩치 큰 가전제품이 누려온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LCD가격이 향후 수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17인치 LCD제품이 모니터시장의 주력 제품으로 부상하고 오는 2007년이면 LCD와 CRT출하대수가 각각 1억 1,900만대와 3,0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2007년까지 LCD가 CRT수요를 거의 완전히 대체하고 CRT는 일부 저개발국에서 판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의 전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아이서플라이는 앞서 올해 세계 LCD패널 매출이 작년에 비해 32% 늘어난 4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이번 3사의 기준안 마련은 EU가 오는 2006년 7월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납 등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키로 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 통해 경제성장 '가속페달'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중국은 최근 독립 문제를 놓고 대만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르기 위해 대만등 외국 기업 투자와 전문 인력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이 보도했다.

특히 최근 대만 기업가들이 이끄는 상당수 신생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으로 몰려오고 있으며, 중국이 하이테크 단지의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시 외곽에 위치한 단지에는 대만 출신 기업가가 설립한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인터내셔널(SMIC)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이 공장에선 초기에 컴퓨터 메모리 칩을 생산하고, 향후 0.10 마이크론의 미세공정 기술을 채택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년도의 5030만 달러에서 대폭 신장된 3억658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SMIC는 수년내 베이징 단지에 2개의 300mm 웨이퍼 생산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산 CPU 세계시장 첫 선

중국산 중앙처리장치(CPU)가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중국 최대 CPU 공급업체인 ARCA는 지난 12일 세계 최대 네트워크 컴퓨터 제조업체인 와이즈 테크놀로지에 자사가 개발한 CPU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중국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외국업체 중 중국산 CPU를 채택하기는 이번 와이즈 테크놀로지가 처음이다. 세계 네트워크 컴퓨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와이즈사는 그동안 내셔널세미컨덕터로부터 CPU를 공급받아 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됐다.

이번 제휴에 따라 ARCA사는 상반기부터 자체 개발한 'ARCA-2' 프로세서를 와이즈에 공급하게 된다. 와이즈사는 ARCA-2 프로세서를 채택한 네트워크 컴퓨터를 전세계에 판매할 예정이다.일반 PC 보다 저렴한 네트워크 컴퓨터는 모니터·키보드·마우스만을 갖추고 있으며

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기능은 서버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ARCA-2' 칩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중 가장 속도가 빠른 임베디드 프로세서로 400MHz 클럭 속도와 0.4W 소비 전력 기능을 갖고 있다. 'ARCA-2' 칩은 '와이즈 1000' 네트워크 컴퓨터 전기종에 채택되고, 와이즈사가 자체 개발한 블레이즈스 운영 체제에서 구동될 예정이다.

히타치, 미국서 55인치 PDP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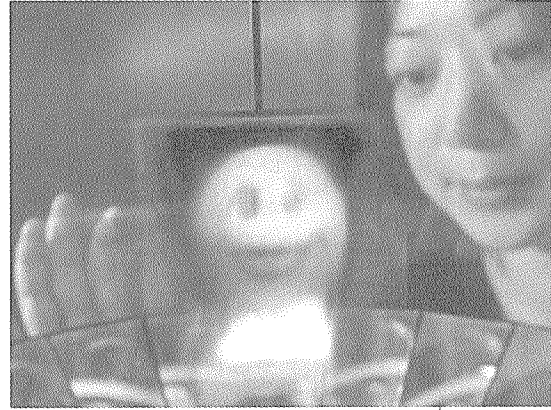
히타치제작소가 미국에서 PDP TV 모니터 사업을 크게 강화한다.

히타치는 미국 시장에서 다음달부터 화면 크기 55인치의 PDP 모니터를 출시하며 5월에는 같은 크기의 PDP TV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이번 미국 시장 공략은 이 회사 AV(음향·영상)기기 사업의 핵심 제품인 PDP TV의 해외 시장 개척이 본격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다음달 출시되는 모니터는 TV방송 수신 기능 없이 회의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연간 1만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다.가격이 1만 달러(약 1300만원) 전후인 이 제품의 패널 부분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모니터 및 TV 조립 공정은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이뤄진다.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 PDP TV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70만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히타치연구소서 개발한 3차원 이미지 디스플레이



일본 히타치연구소에서 개발한 3차원 이미지 디스플레이를 통해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물건처럼 보이고 있다. '트랜스포스트'라고 불리는 이 3차원 디스플레이 장치는 아랫쪽 실린더에 내장된 24개의 거울에서 비춰진 상이 프리즘을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봐도 완벽한 3차원 이미지가 나타난다.

IBM, 4기가 마이크로 HDD 출시

IBM이 노트북PC시장을 겨냥해 4기가 메모리 용량을 지닌 초소형 HDD를 이달 말 출시한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 드라이브'라 불리는 이 제품은 성냥갑만한 크기에 AA배터리 보다 가벼운 무게, 3.5인치 디스켓 보다 2800배나 더 많은 4기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회사측은 4기가 마이크로 드라이브가 기존 노트북 사용자의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품생산은 지난해 구조조정차원에서 HDD사업부문을 넘긴 히타치에서 제작, 납품할 것이라고 밝혔다.